

불자 세상보기



옥복연
종교와 젠더연구소장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아침에 학교 간다고 나갔다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평소 잘 아는 동네 아저씨에게 등교길 차를 태워달라고 했는데, 그 아저씨가 성범죄자였다는 사실을 이 소녀는 물론, 동네 어른들도 몰랐다.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하려다 반항하자 살해. 유기하고, 범행 후 태연하게 목격자로 방송취재전에 인터뷰까지 응하고 수색에도 동참했던 이웃집 아저씨. 현실이 공포영화보다 더욱 무섭게 다가온다.

최근 수년 사이에 아동성범죄는 때와 장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그 수법조차 살인에 이를 정도로 흉폭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현실 진단이나 대책 마련 등으로 요란했고, 최근에는 아동성범죄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성충동 억제제를 위한 약물치료에서 화학적 거제도 가능하게 법제화하였다.

아동성범죄 예방에 우리 모두 나서자

이 사건 이후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여성부의 '성범죄알림' 사이트에 접속이 폭주하면서, 한 때는 이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고 한다. '성범죄자 알림'은 2010년 1월1일 이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해자들의 주거지 등 신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관련법 개정 전인 2005년에 60대 노인을 성폭행하였다가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공개대상자에서도 제외되었다. 이처럼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2011년 이전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이 사이에 접속하려면 반드시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점 등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의 죽음이 더욱 가슴 아픈 것은, 피해자가 방과 후 부모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이 홀로 집에 남겨지는 취약 계층 아동이었기 때문이다. 아동은 우리 사회 미래의 자산이자, 아동의 성장은 성인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보살핌은 개별 부모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동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확보되지 못했고, 그래서 이 어린 소녀의 죽음이 더욱 안타깝다.

불교에서 부처님 재세시 만들어진 계율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잘못을 범할 때마다 하나씩 제정되었다. 그런데 승가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계율이 불사음(不邪淫)이며, 승가의 계율에서 바라이 제1조는 비구와 비구니 모두 성적 행위를 금지하는 계율이다. 성적 욕구는 그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성적 욕구가 살생, 투도, 망어, 음주로 연결되어 오계를 지키거나 수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토록 불사음(不邪淫)을 강조하신 것이다. 이처럼 감각적 쾌락은 갖은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출가자는 '성적 욕구'의 극복을, 재가자는 남녀 상호존중을 기반한 청정한 성관계를 강조한다.

한 사회의 성폭력지수는 그 사회의 안전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지혜를 모아 아동·청소년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데, 이는 개별 가족단위거나 이나 '가족'을 '지역사회'로 확장해서 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아동대상 성폭력예방교육은 물론, 지역사회내 시민사회단체나 기관이 앞장서서 어른들에게 아동성폭력 등 각종 아동대상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미국의 'Men Stop the Rape Program' (남성들이 성폭력을 멈추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Bystander Intervention' (주변 사람들이 개입하기)처럼 어른들이 아동대상 범죄의 가해자가 되지 않고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불교는 공사상이나 연기사상으로 모든 사물이나 생명을 독립적이지 아니라 상호 연계적으로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서로 의존하며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과 결과로서 작용하면서 존재의 근거가 되는 삶이기 때문에,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어른들이 나서야 한다.

취약계층 보살핌 사회책임

승가 첫 계율도 불사음(不邪淫)

범죄 예방 사회차원 확대해야

사부대중 칼럼



성진 스님
조계사 행정국장

"엄마, 나 이제 대학교에 가고 안갈 거야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이야."

재수를 하는 아들이 대입시험을 망치고 와서 어머니 앞에서 술병을 움켜쥐고 통곡을 하며 울부짖고 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2년 동안 팔공산, 봉정암, 보문사 등 좋은 도량에는 다 기도를 올리고 매일 새벽에 불과 1080배, 일주일 마다 철야기도를 했는데 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아들의 목불인견(目不忍見)의 투정이 이어지자 그 어머니는 아주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실망이다 나는 내 아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려하기에 늦게라도 꿈을 이루라야 생각했다 그런데 한낱 대학이라는 것이 부모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줄 몰랐구나. 넌 대학까지 말

야야 잤다."

그 말씀을 하는 동안 그 아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왜냐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오로지 자신을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 그렇게 힘들게 기도 하신 줄 알았는데 '한낱 대학'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이다. 아들은 그 제사야 어머니가 기도하신 이유가 단지 대학을 가고 안 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게 됐다.

그 어머니는 인생의 첫 관문인 입시라는 힘들고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 아들 옆에서 함께 걷기 위해서 세상이 비록 물러라해도 당신만은 사랑으로 지켜주며 신뢰와 용기를 주기위해서 그리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당신이 의지하는 부처님께 기도했던 것이다. 이 이야기속의 아들은 이십여 년 전의 나이고, 나의 어머니이다.

물론 그 말씀을 들은 나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어머니가 태산처럼 키보였다. 출가해 스님이 돼 지난 2년 동안 조계사에 머물면서 수많은 어머니들과 수능기도를 함께 해오고 있다. 그때마다 나는 매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다. 이런

연유로 기도 제목 또한 '자녀를 위한 행복한 동행'이라고 지었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다함께 "누구누구야 할 수 있다"를 목 놓아 외치며 함께 박수를 치게 했다.

수능생을 둔 불자 어머니들은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이지만 공부와 시험은 대신 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단지 그 옆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비록 자녀들이 흔들리고 좌절하려 할

때라도 부모님은 신뢰와 자비심의 눈빛으로 그 옆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고통 같은 나무가 바람에 넘어지려 할 때 단단히 받치고 있는 버팀목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수능기도는 성취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인생의 난관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함께

길을 걸으며 직접 보여주는 시간이다. 만일 부모님이 더 마음이 약하고 두려워하며 화를 낸다면 어떻게 자녀들이 마음 놓고 기낼 수 있었는가.

하루가 멀다 하고 부모가 불안해서 "공부를 했다, 안했다. 옆집 누구는 어디 학교를 갔다는데" 등 조금만 자녀가 공부를 안한다고 체근한다면 아마 가족 전체는 너무나 힘든 임시절을 보내야만 할 것이 분명하다.

부처님은 중생을 항상 자비심으로 제도하셨다고 한다. 지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외롭고 두려워 고개를 들었을 때 묵묵히 옆에서 함께 걸어주고 있는 엄마, 아빠이다.

수능기도는 목적이 아니다. 기도를 통해 내 아들에게 관세음보살, 화엄성중이 되고 부모 자신도 참회와 정진의 기회인 것이다. 나의 어머니는 세상의 잣대가 아들을 재고 흔들 때 아들의 관세음보살이 돼주는 기도를 하셨던 것이다.

수능을 100일 남짓 앞둔 이 시간, 부모로서 자녀 때문에 힘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위한 행복한 동행'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발원해 본다.

수능 기도는 자녀와의 행복한 동행

Advertisement for '새로운 滴天髓 풀이' (New Drop of Heaven髓 Solution) by Seon Jin Seom. Includes book cover images and promotional text.

Advertisement for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We will send 4 books for free to monks and Buddhists!). Includes a calligraphic character '命' and a list of books.

社說 (Editorial) titled '자기 종교 티내는 꼴불견 인기인들' (Disgusting Popular Figures Who Flaunt Their Religion). Discusses the behavior of celebrities and public figures regarding their religious beliefs.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Modernization of Buddhism in Daily Life, Modernization, and Globalization).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ublisher.

Advertisement for '성지관음회' (Sungji Gwan-eum Hui) featuring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Importance of Mountain and Water Fengshui). Includes a list of 12 items and contact details.